

사회



사랑의 쌀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자원봉사자들이 27일 광주시 남구 월산3동 홀로 사는 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50가구에 쌀을 전달하고 있다.

인구 늘리기 요란떠는 광주·전남 시군구 공무원 나으리들은 어디 사십니까

화순 48%, 나주 17%가 광주 살아 동구 583명중 194명만 근무지 거주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인구 유입을 위해 온갖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나 정착 직원들은 교육 여건, 주거 질 등을 이유로 인근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광주시 및 5개 자치구, 전남도 및 22개 시군의 직원 거주 실태 자료(2011년말 기준)에 따르면 인구 급감으로 자치구경계 조정을 통해 간신히 선거구를 유지하는 광주시 동구의 경우 직원 583명 가운데 3분의1에 불과한 194명(33.27%)만이 동구에 살고 있다.

■ 광주시 및 각 자치구 공무원 거주 현황

Table with 8 columns: 구분, 계, 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Rows include 자치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타지역.

■ 전남도 및 시·군 공무원 거주현황

Table with 3 columns: 시·군, 직원수, 관내거주직원수(%). Rows include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28%)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다. 보성군은 568명의 직원 가운데 389명(68.5%)만이, 무안군은 586명의 직원 가운데 396명(67.5%)만이 각각 관내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광주·목포 등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군, 진도군, 광양시 등은 전 직원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교적 주거 여건이 좋은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등은 대부분의 직원이 해당 지자체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공금 횡령 전남교총 전 회장 등 징역

광주지법 형사9단독 판민석 판사는 최근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남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전 사무총장 정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 위반)로 기소된 목포 모 대학 교수인 또 다른 김모(65)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총 임원인 김씨와 정씨가 불법적인 자금 조성과 유용으로 단체에 피해를 준 책임이 크다"며 "일부 피해금을 반환하고 두 사람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프로야구 또 다른 경기조작 있었다"

검찰 진술 확보

프로야구 경기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금까지 경기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선수들이 가입한 경기 이외에 또 다른 경기조작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구속한 대학야구 선

수출신 김모(26)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프로야구 경기가 조작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프로배구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브로커 강모(29)씨 등에게 자신의 고교후배 출신인 LG 트윈스 선수 김모(23)씨 등 2명의 선수를 소개한 인물로, 그동안 프로야구 경기조작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었다.

'막장'父子

아버지 지시에 아들은 강도짓

아들에게 강도짓을 시킨 함심한 40대 아버지와 이를 '성실하' 수행한 첩부지 20대 아들. 광주서부경찰이 27일 한 남성을 폭행하고 공금을 갈탈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사건구속영장을 청구한 안모(20)씨의 범행동기는 황당하게도 '아버지의 심부름'이었다. 지난달 초 사기 등 전과 4범인 안씨의 아버지(46)는 지인 조모(31)씨의 부탁을 들어 주기로 마음 먹었다. 조씨의 부탁은 "친누나(38)가 5년여를 동거한 김모(43)씨와 헤어지려고 하는데, 누나가 모은 돈을 주지 않아 손을 봐야겠다"는 것이었다. 안씨는 특수강도 등 전과 8범인 아들에게 "김모씨를 손보라"고 시켰다. 안씨는 교도소 동기이자 후배인 유모(17·특수절도 등 5범)군과 함께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서구 김씨의 집을 찾아가 김씨를 폭행하고 현금과 통장을 빼앗아 현금 600만원을 인출했다. 경찰은 이날 안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사건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달아난 안씨 아버지의 행방을 추적중이다.

'황당' 여대생

술취해 택시 탄후 기사 강제추행

지난 10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모 파출소에 황당한 신고가 접수됐다. 택시기사 A(32)씨가 따돌감 여대생 B(20)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것. 경찰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상황은 이랬다. A씨는 전남대 인근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중 이날 새벽 1시에 술에 취한 B씨를 태웠다. B씨는 광산구 삼정동 홈플러스까지 가달라고 요구했다. 북구 운암동 고가를 지난 무렵 갑자기 B씨가 돌변했다.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B씨가 운전중인 A씨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한 것이다. 손길은 어깨에서 머리, 목, 가슴으로 이어졌다. A씨는 "장난치지 말라"고 혼내했지만 여대생은 급기야 A씨의 귀 등을 애무하기 시작했다.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택시를 급히 몰아 광산구 모 파출소로 향했다. 지구대에 도착한 A씨는 몇해전 비슷한 사건으로 곤혹스러웠던 경험을 떠올리며 처벌을 원했다.

수배자가 지하철역 강도

범행 1시간만에 검거

대안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60대 수배자가 범행 1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27일 부녀자를 폭행하고 공금을 빼앗아 달아난 김모(62)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3시16분께 광주시 서구 능성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김모(여·67)씨를 폭행하고 현금 3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8년 전 부인과 이별하고, 5년 전에는 사업마저 실패하면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지난 2007년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지방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원침 (8511) 김동주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금품수수 혐의 영장 청구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윤식 부장검사)은 27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뢰)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치안장관)에 대해 사건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술기에 옆방 들어가 더듬더듬

○"육군 하사가 외박을 나와 모텔에 투숙했다가 술기운에 방을 착각, 연인들이 자고 있는 옆방에 들어가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더듬다가 경찰차량

○"2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소속 하사 지모(22)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A모텔 5층 객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여·25)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이를 제시하는 A씨의 남자친구(20)와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지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옆방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친 것으로 보고, 해당 부대 헌병대에 입건.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Includes sub-sections for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대지/임야/전답].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Includes sub-sections for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Includes sub-sections for [특별매각조건], [특별매각조건].